

## 2014년 창작뮤지컬 육성 지원사업 대본공모 지원 심사평

- 일시 : 2014. 11. 7(금) 16:30~18:00
- 장소 : 대학로 예술가의 집 세미나 3실
- 심의위원 : 구소영, 서재형, 오은희, 이지나, 이희준, 장소영, 허순자 (가나다 순)

2014년 창작뮤지컬 육성 지원사업 대본공모는 작품 제작 단계별 지원의 첫 번째에 해당하는 지원으로,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수상의 영예와 더불어 2015년 시범공연 지원에 자동 선정되는 기회까지 제공한다.

이번 대본 공모에는 총 69편의 미발표·미공연 신작이 접수되었고, 그 중 6편(〈푸른 연꽃〉, 〈모스크바의 종〉, 〈컷 더 로프〉, 〈로미오 혹은 줄리엣〉, 〈따뜻하게 부드럽게 달콤하게〉, 〈신과 함께 가라〉 - 지원번호 순)을 대본공모 우수작품으로 선정하였다.

이번 심의는 한 해 동안 창작자들이 쏟은 노력의 결실을 모아 볼 수 있는 자리로 그 어느 때보다 접수 작품이 많았다. 지난 2개월간의 심층 검토와 2차례의 지원심의 회의를 통해 최종 작품 선정에 심혈을 기울였다. 대본, 악보, 음원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작품의 예술성(40%), 대중성(30%), 무대화에 따른 발전 가능성(30%)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며, 모든 작품은 무기명으로 심사하였다.

최우수 작품 1편과 우수작품 4편을 선정할 계획이었지만, 최우수작으로 선정할 만큼의 대본과 음악의 조화력과 완성도가 잘 결합된 작품이 없었다는 것이 심사위원 전원의 의견이었다. 따라서 시상 작품 후보에 대한 심층토의 결과, 심의위원 전원 합의를 통해 최우수 작품을 대신하여, 우수작품에 해당하는 2편을 추가로 선정하였다.

각 우수작품의 대한 총평은 아래와 같다.

〈푸른 연꽃〉은 뛰어난 문학적 재능에도 불구하고, 시대와 개인적 운명의 한계로 인해 불행한 삶을 살았던 ‘허난설헌’을 소재로 작가의 창의적 상상력을 적극적으로 확대한 작품이다. 타 작품들에 비해 서사의 완결성이 돋보이는 작품이나 작곡이 전반적으로 관습적이고, old-fashioned 한 스타일로 현재의 관객에게 어필하기에는 다소 이질감이 있다고 판단한다. 또한 음악의 템포감과 선율이 비슷하여 지루함과 동시에 극의 템포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이 아쉬운 측면으로 지적되어 이에 대한 수정, 보완을 요한다.

〈모스크바의 종〉은 라흐마니노프의 청년기 고난과 역경을 파노라믹한 전기적 사실로 도입한 작품이다. 대사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사건이나 상황의 변화가 지나치게 돌발적인 점 등이 대본의 취약성으로 나타났으나, 독특한 소재와 비교적 안정적인 음악성으로 극 전체가 탄력을 받았다. 하지만 우리가 늘 들어왔던 음악가들의 전기와 다르지 않아, 트렌드를 뒤따라가는 인상을 주고 있어, 관객들에게 흥미롭고 신선한 작품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스토리 구성이나, 캐릭터 변화에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특히 음악의 길이가 대부분 짧은 반면, 넘버가 많고 상투적인 면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전주, 후주, BG와 언더스코어까지 감안한다면 러닝타임이 길어지는 점과 공간 이동이 잦은 점에 대해서도 고민과 해결책이 필요하다.

〈컷 더 로프〉는 ‘산행’이라는 예외적 소재와 그로부터 파생된 ‘크레바스’라는 상징적 개념을 가족 간의 메워질 수 없는 틈새 혹은 골 깊은 상처로 연결한다. 과거 기억에 대한 플래시백과 현실을 교차시키는 스피디한 장면 전개는 그에 대응하는 음악적 결정력, 짜임새로 돋보인 작품이다. 다만 인물설정의 작위성을 개선하고 그들의 심리적 갈등을 좀 더 입체적으로 다루어지는 발전을 기대한다. 내용상 슬로우 템포의 무거운 곡들이 많아서 다소 템포감이 떨어질까 염려되지만, 음악적으로 드라마를 잘 이해하고 캐릭터를 살리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새로운 틀을 시도하고자 하는 창작 의지에 박수를 보낸다.

〈로미오 혹은 줄리엣〉은 셰익스피어의 동명 원작을 기저로(부분적으로는 〈12 야〉의 영감도 활용) 동시대의 성적 편견 내지 고정관념에 도전한다. 잘 알려진 고전의 틀거리 속에 집어넣어 의도적 비틀기를 감행한 작품이라 다소 피상적이고, 작위적인 측면을 피할 도리는 없지만 1차원적인 뒤집기를 통해 작품의 무게를 다소 가볍게 하고 원작에 대한 역발상이 흥미로운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극의 구성, 가사, 락오페라 음악의 활기찬 전개는 나름의 매력과 흡입력이 있다. 36곡이나 되는 음악은 오페라와 락을 결합한 형태여서 난해하면서도 신선했다. 그러나 넘버가 필요이상 많다는 점에서 곡의 길이에 대한 안배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합치고 덜어내는 고민의 과정이 절실하다.

〈따뜻하게 부드럽게 달콤하게〉는 교도소라는 사회와 격리된 폐쇄 공간에서 조우한 네 남자들의 상호 이해와 따뜻한 동료애가 휴머니스틱한 감동을 제공한다. 다소 거친 웃음을 유발하는 극본의 소극적 상황의 약점을 굳이 감추지 않는 컬러플한 음악은 역동성, 대중성의 긍정적 질감을 암시한다. 리드미컬한 음악과 스토리텔링이 있는 유틸리티 넘치는 가사들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좀 더 말장난을 덜어내고 각자의 사연과 갈등, 정서들에 집중하는 노력을 기울이면 대중들이 선호하는 소극장 뮤지컬로 성장할 가능성 있는 작품으로 평가한다. 다만 자칫 노래들이 비슷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어 템포나 음악 스타일에 다양함을 꾀하길 바란다.

〈신과 함께 가라〉는 탄탄한 구성, 인물, 흥미로운 소재 등 동일 제목의 원작 영화의 서사적 강점을 최대한 활용한 작품이다. 원작의 섬세한 디테일 대신 큰 줄기를 추린 작품은 ‘칸

토리안' 수도사들이 음악으로 만나는 세상 여정이라는 갈등 구조를 비교적 선명하게 구축해 낸다. 즉 그레고리안 성가, 다성음, 클래식음악을, 이른바 팝으로 대변되는 세속음악으로 연결하며 그들이 서로 부딪고, 고뇌하며, 마침내 화해하는 과정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각각의 캐릭터들이 매력 있고, 극의 짜임새도 우수하다고 평가하며, 음악 또한 인물의 성격과 이야기를 잘 감싸주고 있어 무대화 된 후의 결과가 기대되는 작품이다. 천편일률적인 뮤지컬 시장에 아기가자기 하면서도 따뜻한 울림이 있는 작품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 다만, 동명 영화를 모티브로 하고 있기에 재현과 창작사이에서의 무대만이 보여줄 수 있는 독창성에 대해 부단한 노력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상기 우수 작품들로 선정된 6편의 주목할 만한 성취들에도 불구하고, 최우수작품을 탄생시키지 못한 것이 가장 유감스럽다. 하지만 이번 선정을 계기로 극본의 서사와 음악의 완결성이 아름다운 창작의 교집합을 이룸으로써 최고의 가치를 발휘하는 탁월한 작품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지난 한 해 동안 새로운 뮤지컬을 창작하기 위해 힘쓴 창작자들에게 아낌없는 격려와 박수를 보내며, 더욱 창작에 매진하여 창작뮤지컬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에 힘입어 창작뮤지컬의 시대를 꽃피우기를 기대한다.

또한 이번 대본공모 지원에서 선정되지 못한 작품들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보이는 작품들이 많았다. 다만 작품의 완성도가 미비하여 예술성과 발전 가능성을 평가하기에 이번 공모전엔 충분치 못 하다고 판단한다. 많은 작품들이 스토리와 형식면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뮤지컬은 '음악을 스토리로 엮는 작업'이란 점에서 '스토리를 위한 노래'라는 연극적 접근을 벗어나 보다 완성된 형태로 오는 2015년 시범공연 지원공모 (접수신청 2014.12.1~12.22)에 다시 도전해보기 바란다. 한 단계 더 발전되고 완성된 모습으로 경쟁하기를 독려한다.

창작뮤지컬 육성 지원사업  
대본공모 지원 심의위원 일동